

“韓美 통상·안보협의 최종타결”...조인트 팩트시트 확정

李대통령, 팩트시트 합의 직접 발표

“상업적 합리성 프로젝트에만 투자
‘사실상 공여’ 일각의 우려도 불식”
국정주도권·국민안심 등 복합 고려
핵심·연료 재처리 안보 성과 부각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한미 양국의 관세 및 안보 협상 최종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를 직접 발표했다. 지난달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16일만에 나온 최종타결 선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선언했다.

통상적으로 장관급이나 수석비서관이 발표할 수도 있는 ‘팩트시트’ 내용을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서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여기에는 이번 합의가 갖는 무게감과 더불어 복합적인 정치적 고려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최대 현안’ 해결을 통한 국정 주도권 확보다. 이 대통령 스스로 언급했듯, 이번 협상은 ‘내란과 국가적·사회적 혼란’의 여파로 뒤늦게 출발한, 정권의 명운을 건 협상이었다. 정권 출범 이후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뒤흔들었던 ‘최대 변수’를 대통령이 직접 ‘최종 타결’로 매듭짓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복잡한 국내외 현안에 대한 강력한 국정 장악력과 위기관리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다. ‘사실상 공여’ 우려에 대한 정면 돌파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거리였던 투자 문제, 즉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빚자한 사실상 공여’ 의혹을 대통령이 직접 불식시킨 점이 핵심적 성과다. 이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적 우려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협상 성과에 대한 신뢰를 직접 담보하겠다는 의지를 과렷했다. 또한 ‘안보 주권’ 관련 성과 극대화 핵 추진 잠수함(핵잠) 건조 추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은 역대 정부의 숙원이자 주권과 직결된 민감한 안보 사안이다. 이는 단순한 실무 합의를 넘어서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다. 이 대통령이 이를 직접 발표하며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강조한 것은 한미동맹의 격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는 한미 원자력 협정의 틀을 넘어서는 전략적 진전으로, ‘핵 주권’ 확대를 향한 중대한 첫발을 뗀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 지속 주둔, 확장 억제 공약 재확인 등 더불어 전작권 환수의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관찰했음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성과를 “한미동맹의 르네상스 문이 활짝 열렸다”고 자평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에 감사를 표하며 파트너십을 과시했다. 하지만 그는 “비록 협의가 매듭지어졌지만 이제 시작”이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오직 국익만이 영원하다”고 강조한 대목은, 이번 협의를 발판 삼아 향후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본격화하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당장 이번 주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 대통령이 이번 한미 합의라는 외교적 성과를 바탕으로 다자외교 무대에서 어떤 ‘국익’을 더 쟁취할지 주목된다.

與 “팩트시트는 국익시트”
국힘 “백지시트·굴욕세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하면서 국회 차원의 후속 절차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는 ‘국익시트’ 그 자체인데 국민의힘은 기다리던 진짜 성과 앞에서 왜역지로 눈을 감는가”라며 “박수를 바라진 않았지만, 민심을 애써 외면하며 자기 위안에 머무는 모습이 안타까울 지경”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팩트시트 내용을 보면 서두르지 않고 국익을 관철한 정부의 노력이 돋보인다”며 “국민의힘의 바람과 달리 여론·민심은 이미 성과를 인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민심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국민의힘을 버릴 것”이라며 “이제 국회가 나설 때로, 민주당은 신속한 입법과 예산으로 성과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팩트시트와 관련,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격상시킨 팩트시트에 대해 국민의힘이 ‘백지’, ‘굴욕’이니 하며 사실을 왜곡한다”며 “외교·안보 성과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며, 보수의 상징인 한미동맹마저 스스로 훼손하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대장동 의혹을 덮으려 급박히 팩트시트를 만들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모욕하는 것인가.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팩트시트, 까보니 백지시트, 굴욕세트였다”며 “구체적 내용 하나 없고 화려한 말 잔치와 감성팔이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농축산물 수입 규제가 완화돼 앞으로 우리나라 농민과 농업 기반 지역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농민들은 지금이야말로 트랙터를 몰고 용산 진격을 해야 할 때 아냐”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팩트시트가 공개됐지만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도 모르지 않 수 없다”며 “지켜야 할 국익 대신 막대한 부담과 모호한 약속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이 명시한 절차를 무시하고 패싱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국회 비준 없는 협상 결과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기업활동 장애 최소화되도록 총력 다할 생각”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

“규제 신속정리” 재계 총수들에 약속
“지방 산업 활성화에도 관심을” 요청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재계 총수들과 만나 “정부는 기업인들이 기업활동을 하는 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도출과 관련한 후속 논의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간 합동회의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게 정부의 주요 역할”이라며 이같이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국제질서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동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나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최선이었기에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다”며 “그럼에도 남들이 예상하지 못한 성과라면 성과(이고), 방어를 아주 잘 해낸 것 같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첨병은 기업”이라며 “이것은 하나의 기회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관세가 올라갔는지만 전 세계가 똑같이 당하는 일어서 객관적 조건은 별로 변한 게 없다”며 “변화된 상황에 신속히 적응하고 기회를 만들면 우리에게도 좋은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 과정에서 “학력고사 어려워졌다고 등수가 변하는 건 아니다”라는 비유를 들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미 투자 금융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는데, 그 부분을 정부와 잘 협의해서 기회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며 “산업부에서도 그 점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를 포함한 각종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제가 세금 깎아달라는 얘기는 별로 안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 대통령,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연합뉴스

좋아한다. 세금 깎아가며 사업해야 할 정도면 국제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그보다 여러분이 제일 필요한 게 규제 같다. 완화, 철폐 등 가능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면 제가 신속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것”이라며 “연구개발(R&D) 또는 위험 영역에 투자해서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 인수한다든지, 손실을 선순위로 감수하는 등의 새로운 방식도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

리면서 “친기업, 반기업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혹시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도록 여러분이 잘 조치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비슷한 조건이라면 되도록 국내 투자에 지금보다 좀 더 마음 써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그중에서도 균형 발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방의 산업 활성화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도 부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연합뉴스

민간자격증 관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파크골프 모든 것!

실내연습장 완비

지도자 자격증 취득

- 모집기간 : 수시모집(1:1교육)
- 교육접수 / 파크골프지도자 1,2급
 - ▶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매주 2회 이상)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접수방법
농협 351-1286-9685-63(국제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2급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 H.P. 010-9163-7897 Tel. 062-369-0070

파크골프교육 (초보,중급,고급)

- 실내실습장(파크골프 스크린장) 1:1 책임지도(매주 2회 이상)
- 광주교육대학교 시민대학 강좌 개설 - 매주 토요일 09:00-11:30
- 매월1회 이상 파크골프 동호인 동행 전국구장투어



파크골프지도자 1·2급과정 교육 희망자 모집

교육과정			
2 급 지도자 과정	28만원 자격취득 총비용	실기실습장 이용권 33회 합격시까지	1:1지도 사전예약
1 급 지도자 과정	36만원 자격취득 총비용	실기실습장 이용권 33회 합격시까지	1:1지도 사전예약
초급완성반과정	12만원	실기실습장 이용권 15회	1:1지도/3회 사전예약
초급원포인트과정	6만원	실기실습장 이용권 6회	1:1지도/2회 사전예약

※ 파크골프지도자 1·2급 합격시까지 그 외 비용 일체 없음
※ 접수 즉시 이론교재 및 예상문제지 배송 실기실습/실내실습장 합격시까지 무료교육
교육시간 평일(토)오전 09시~ 오후 19시까지(일)/휴무
접수문의 T. 062-369-0070 M. 010-9163-7897
접수비 입금계좌 국민은행 772601-01-794141

안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방향